

“절대 잊지 않고 진실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진도 팽목항·서울 광화문 광장 추모 물결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은 숨진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염원이 한데 모여 숙연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유가족에게는 애끓는 슬픔,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속타는 기다림의 장소였던 방파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방파제 울타리에 걸린 노란 리본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세찬 바람에 리본이 나부길 때마다 5년 전 그날의 절망과 아픔이 불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추모객들은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별이 되어 빛나소서' 등 노란 리본에 새겨진 글귀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파도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기다림의 의자'를 바라보며 저마다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추모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는 12km길이의 팽목 바닷길을 걸으며 참사를 되새겼다. 이들은 진구 지수문에서 출발해 팽목방조제를 지나 팽목항 기억등대가 보이는 마사선작장에 머물러 추모의 뜻을 새겼다. 이어 마사마을을 지나 팽목마을과 팽목항 기억관, 팽목방파제를 걸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9월 희생자 영정사진과 추모물품이 정리된 뒤 기억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옛 팽목항 분향소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방명록에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밝혀지고 나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분노입니다' 등의 글을 남겼다. 팽목항을 찾은 추모객들은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리며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5년 전 그날'을 기리려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2개의 전시실,

팽목항 방파제·기억관

아침부터 전국서 추모객

참사의 그날 회상하며 눈시울

시민참여 공간 등으로 구성된 추모 공간 '기억과 빛'을 오가며 전시물 하나하나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읽어내려갔다.

친구, 연인과 함께 기억공간을 찾은 이들은 단원과 학생들의 흔적, 유족들이 남긴 글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있기도 했다.

노란 리본과 함께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라고 적힌 문구를 휴대전화 카메라 속에 담은 한 여성은 단원과 학생들의 단체 사진 앞에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우연히 광화문광장을 찾은 듯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영상을 말없이 바라보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했다.

잠시 짬 내 광화문을 찾았다는 직장인 허모(28) 씨는 "어린 친구들이 다니는 사회적 참사를 겪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힘을 보태자고 늘 다짐하게 된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윤보라(30) 씨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많은 부분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면서 "매년 4월이면 잊지 말아야지, 기억해야지 하는 마음에 다시 광화문을 찾은 한다"고 말했다.

단원과 희생 학생의 엄마가 쓴 시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이 적힌 벽면 아래에는 노란 톱질과 프리지어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오전 11시 전시공간이 열리기 전 어느 시민이 가져다 놓고 간 것 같다고 한 관계자는 귀찮았다. 꽃다발에는 어떤 문구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사고 이후 5년 넘게 계속되는 아픔을 기억하며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등을 염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유가족이 전남 진도 맹골수도 인근 사고해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유족들에게 힘을 보태려는 시민들도 많았다. 점심시간을 맞아 광화문을 찾은 직장인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특별수사단 설치를 바라는 국민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자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매년 4월 16일이면 광화문을 찾았다는 김준성(43) 씨는 "여전히 먹먹한 마음"이라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유병주(31) 씨는 "얼마 전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다른 영화 '생일'을 봤는데 더 생각이 났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국민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한영 기자 young@·연합뉴스

“애들아 보고 싶어”...학생 유가족들 맹골수도 사고해역서 헌화

“미안하다” “보고 싶어” “잘 있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 바다에서 그리운 아이들에게 전하는 인사가 울려 퍼졌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희생자 24명의 부모는 이날 진도 서망항에서 낚시배 2대를 나눠 타고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바다를 찾았다. 이날 만류는 잔잔한 물살을 헤치고 1시간여 만에 도착한 바다에는 녹이 슬고 빛바랜 부표만이 외롭게 떠 있었다. 노란색 부표에 새겨진

“세월” 두 글자는 그곳이 5년 전 아이들을 잃어버린 차디찬 바다였음을 알리는 이정표 노릇을 했다. 참사현장인 맹골수도를 향하는 내내 선실에 웅크리고 앉아 침묵을 지켰던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이름을 목청껏 불렀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되뇌며 국화 송이를 바쳤다.

세월호가 가라앉아버린 오전 10시 30분에 맞춰 아이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 바다에서 가슴에 담았던 말을 꺼냈다. “내년에 또 올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나야 해” 낚시배 난간을 부여잡고 서로를 껴안으며 사고해역을 돌아보던 부모들은 또 한 번 아이들과 가슴아픈 작별을 했다. 서망항으로 발길을 돌린 단원고 세월호 가족들은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선체 앞에서 희생자 넋을 위로했다. /김한영 기자 young@·연합뉴스



세월호 생존학생 기억편지 '울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서 생존 학생인 장재진 양의 기억편지 낭송을 듣던 중 울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옥중 참회 편지...사고 관련 언급은 안해

광주 서정교회 장현권 목사 공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팽목기억공간조성을 위한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장현권 서정교회 목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와 주고받은 서신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

이 씨는 이 편지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항상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며 "하루도 지난날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때로는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다"며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반성하고 기도드리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날을 수없이 돌아봐도 저 자신이 미워지고 화만 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 힘들게 지내는 모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이 씨는 자신의 어깨 통증을 호소

하며 유일하게 '세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그는 "어깨에 통증이 오는 등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고장이 생긴다"며 "이 모두가 노화에서 오는 것 같아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는 옛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씨와 승무원들은 승객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남기고 자신들만 목포해경 123정을 타고 떠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씨는 2015년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순천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한영 기자 young@·연합뉴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 8 회 전국 교역자 및 성도 세미나 (초교파)

일곱 우리가 담긴 작은 책

강사 : 다시복음으로 본 구속사 시리즈 저자 조영래 박사(목회학, 문학, 철학) 직강
이 책을 읽는 사람만이 신천지를 이길 수 있다

▶일시: 2019년 4월 29일(월) ~ 4월 30일(화) 14:00~18:00
▶장소: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1층 (광주 광역시 북구 서림로 94-7)
▶문의 및 신청: 010-8535-2007, 010-8991-7487, 010-9114-6654 (선착순 마감)
▶참가비: 없음
▶블로그: blog.naver.com/osbooks

다시복음으로 본 구속사 시리즈(판매 중)

1권 멜기세덱, 그는 누구인가? / 2권 이 땅의 주, 그는 누구인가?
3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들은 누구인가?
4권 네 생물, 그들은 누구인가?
5권 666, 그들은 누구인가? / 6권 작은책 / 별책 장안산(上)

출간 예정 : 7권 멜기세덱 후편
8권 이 땅의 전쟁은 이나라 이민족의 운명이다
9권 하나님과 여호와는 어떻게 다른가?
10권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어떻게 다른가? / 별책 장안산(下)